

대장동 특검·코로나 방역이 대선 중반 판세 가른다

뉴스 초점

초반 접전 양상 뒤흔들 3대 변수

여야 대장동 특검 도입 한 목소리 대상·추천 방식 놓고 치열한 공방 코로나 진정이나 확산이나 촉각 진보·보수 진영 결집에도 총력전

대선 초반 판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순부터 내년 구정 직후까지의 중반전에서 어느 후보가 판세를 주도하며 치고 나갈 것인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대선 중반전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대장동 특검과 코로나 19 방역, 보수 진보 진영의 결집 등을 꼽고 있다.

◇대장동 특검=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특검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대장동 특검론은 일차적으로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압박하는 형국이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과거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논란과 맞물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양측 모두 특검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특검제안에 분주한 모습이다. 당장, 특검 수사 범위와 추천 방식이 논란이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이 수사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몰타기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 특검 추천 방식도 국민의힘 특검법안에는 대한변협이 4배수를 추천한 뒤 교섭단체 합의로 2명으로 압축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에 방점이 찍혀있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가

운데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방식이다. 여야가 서둘러 특검에 합의하고 기간 연장 없이 수사를 마친다면 대선 직전에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대선 전에 수사를 끝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특검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격화될 수밖에 없고 이를 두고 유권자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가 변수로 꼽힌다.

◇코로나19 방역=대선이 중반전에 돌입하려는 시점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6000~7000명을 넘나들면서 방역 이슈가 대선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병상 부족 등 의료시스템 붕괴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1만 명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3차 부스터 샷 접종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 패스제 도입 등에 나서고 있지만 과연 코로나19 확산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렇다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복귀 등 방역의 고통을 당길 경우, 자연업자 등의 반발이 부담이며, 위드 코로나에 성급하게 나섰다는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시기도 문제다. 방역 강화에도 연말과 연초에 코로나 19 확산이 계속된다면 민심의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손실 보상제 확대 등을 제시하는 한편 방역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심상치 않은 민심에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의힘은 12일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의료 시스템을 긴급히 복구하라"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내세우는 등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진영 결집=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대위를 다시 추스리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 민주당은 176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12일 경북 문경시 가은역을 찾아 꼬마열차에 탑승하며 20여년 전 석탄을 실어 나르던 철로에서 관광지로 바뀐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의 거대 정당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결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이재명'으로 뭉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연일 정치적 공세에는 나서고 있지만 현장을 뛰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리고 둔한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승자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국민의당 전직 의원

들의 영입 등 통합을 통한 진영 결집에 나서고 있지만 시너지 효과가 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대선을 이끌 좌장들의 헌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도 선대위를 재정비 했지만 아직까지 보수 진영을 결집시키고 대선 정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

온다. 새로운 비전 제시로 지지를 이끌어내기 보다 '정권심판론'에만 기댄다는 것이다. 김중민-김병준-김한길-이준석 4각 편대의 시너지 효과도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결국, 윤 후보가 보수와 중도를 결합할 수 있는 과감한 리더십과 비전을 보여야 대선 중반 판세를 주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문 대통령 3박4일 호주 국민방문 출국

핵심 광물 공급망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3박4일 간의 호주 국민방문을 위해 12일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호주가 초청한 최초의 외국 정상이며, 한국 정상이 호주를 국민방문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외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후 전쟁기념관을 찾아 한국전쟁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의 만찬을 갖는다.

14일에는 시드니로 이동해 호주의 야당인 노동당 앤서니 알바니에지 대표를 면담하고 호주 경제인들을 만나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한다.

문 대통령은 15일 귀국한다.

정외대 측은 "최근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핵심 품목들의 경우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국민방문은 원자재와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의 경우 희토류가 풍부하고 리튬이나 니켈 등 천연자원도 많이 생산되고 있어 이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외교가에서는 호주가 중국과 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방문이 이뤄진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해대다 호주에서도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순방 시점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재명 3박 4일 TK 행보... "저는 문재인도 윤석열도 아닌 이재명"

문 정부와 차별화·탈 진영 가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민생'을 키워드로 앞세워 '대장동 의혹'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 후보 측은 사태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광복의 현장일정을 중심으로 실용-민생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맞물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강도를 점점 높이는 동시에 탈이념·탈진영 행보도 가속화하며 중도 공약을 강화하는 흐름이다.

당장 지난 주말 3박 4일 일정의 대구·경북(TK) 방문부터 연일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다. 부동산·방역·일자리·에너지 등 각종 이슈에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사안에 따라서는 직격도 서슴치 않고 있다.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경북(TK) 매터버스 일정 첫날인 지난 10일에는 "저는 문재인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다. 이재명은 이재명이다"라며 방역 문제

와 관련, "전 세계에서 방역 잘한다고 칭찬받는데 방역 그거 누가했나. 사실 여러분들이 했다. 다른 나라 같으면 마스크 안 사주고 '마스크 써라' 하면 폭동이 난다"고 문재인 정부가 자랑거리로 삼아온 'K방역'의 빈틈을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서울 집값 올라서 생난리가 났다"고 정면 비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 일변도였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경제적 성과를 두루 언급하고, 친기업 및 규제 철폐의 성장 이미지를 내세우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TK 방문 이틀차인 11일에는 전두환씨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이 '삼저 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인 게 맞다"고 공과를 평가하기도 했다. 대장동 의혹의 잡음을 걷어내고 이 후보가 자신감을 갖고 있는 정책·인물 대결 구도로 선거판을 끌고 가겠다는 포석으

로 분석된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12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우리가 제기하는 민생 문제를 계속 외면할 수 없기에 곧 직접 나설 수밖에 없고 인물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계속 민생 이슈를 선점해왔기에 이제 우리 프레임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칠어지는 야권의 대장동 의혹 공세엔 '특검 수용 카드'로 대응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처음부터 끝까지 상영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실질적 협의를 여야가 국회에서 대신 해주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향한 공세는 '이미 특검을 수용했다'는 논리로 방어하면서 구체적인 특검 관련 논의는 국회로 공을 넘긴 셈이다.

대선까지 9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특검 도입은 여야가 공방만 벌이다 시간을 보낼 가능성도 작지 않기 때문에 이 후보로서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노린 양수점장의 카드인 셈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소기업·소상공인을
언제나 든든하게 지켜드리니까

언제든지 노란우산

- 연 최대 500만원 소득 공제
- 연 복리 이자 지급
- 공제금 압류 금지
- 경영·심리 무료 상담

코로나 위기 노란우산과 함께 극복하자!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노란우산 신규가입시 최대 24만원 가입 장려금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